

#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주요 Q&A

2017. 4. 20

## 금 융 위 원 회

### 1. 한국은행 가계신용과 금감원 속도치간 차이점은?

- 속도치에는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판매신용 등은 제외
-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동향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대응을 적기에 추진\*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
  - \* (예시)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여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제2금융권의 총당금 적립기준을 선제적으로 대폭 강화('17.3월)
  - 즉, 속도치는 정부의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중요 부문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함
- 이에 한은 가계신용의 포괄범위와 최대한 일치\*시키면서도,
  - \* '16.말 기준, 속도치 포괄범위는 가계신용의 약 86.6% 수준(1,164조원)
  - 속도치 취지를 살려 ①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, ②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제외

(단위 : 조원, %)	'16.말 잔액(C)	비중 [C/(A+B)]	최근 5년간 변동액	속도치 포함 여부
예금은행	617.4	45.9	161.6	○
비은행예금취급기관	291.3	21.7	107.5	
상호저축은행	18.3	1.4	8.1	○
신용협동조합	36.7	2.7	16.9	○
상호금융	171.1	12.7	52.5	○
새마을금고	64.0	4.8	30.4	○
신탁·우체금융	1.2	0.1	△0.4	X
기타금융기관 등	362.9	27.0	141.1	
보험기관	108.7	8.1	34.0	○
연금기관	13.0	1.0	△0.6	X
여신전문기관	55.2	4.1	16.4	○
공적금융기관	34.0	2.5	3.6	X
기타금융중개회사	138.8	10.3	81.7	△(주금공 양도분 92.6)
기 타	13.2	1.0	6.1	X
계 (가계대출 : A)	1,271.6	94.6	410.2	
(판매신용 : B)	72.7	5.4	17.9	X
가계신용(A+B)	1,344.3	100.0	428.1	

## 참 고

### 속보치 제외 항목 상세 이유

#### ① 신탁·우체금융예금

- 장기간 큰폭의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규모가 유지

#### ② 연금기금 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

- 장기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, 연금수급(예정)자에 대한 대출로 리스크수준도 낮은 편

#### ③ 공적금융기관 (주택도시기금, 한마을금융, 신용회복기금 등)

- 정부의 정책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출로 기금운용계획, 국회승인 등 공인된 별도절차에 따라 대출규모가 관리

#### ④ 기타금융중개회사 (주금공 양도분, 증권사, 대부사업자 등)

- 속보치에 포함되는 주금공 양도분(정책모기지)이 잔액의 상당 부분(66.7%), 변동액의 대부분(82.4%)을 차지\*

\* 주금공 양도분 제외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최근 5년간 변동액은 14.4조원 수준

- 증권사 대출 등은 매주 속보치 집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- 아울러, 대부사업자는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도 관리중

#### ⑤ 기타금융기관 등의 기타 (한국장학재단, 보훈기금 등)

-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1%수준으로 작으며,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 승인 등 공인된 별도절차에 따라 대출규모가 관리

#### ⑥ 판매신용

- 카드사용액, 할부금 등 가계의 소비활동\*과 관련된 것으로, 속보치를 토대로 선제적 관리를 적용하는 데 부적절한 측면

\* 실제로 '16.4분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, 신차 특판으로 판매신용이 큰폭 증가

※ 참고로, 현금서비스,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하여 집계

### 2. 속보치를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, 향후에도 지속 발표할 계획인지?

- 속보치 발표를 통해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,
  -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정책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
  - 가계대출 속보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발표할 계획 (월 1회 원칙)
- 아울러, 한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통계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